

# “욕심 버리고 자신감 얻었어요”



문경찬

## KIA 마운드의 희망 문경찬·박준표

### 스프링캠프 앞두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나란히 2군행 “실력으로 보여주자” 맹훈련... 선발·불펜 1군 벽 넘어



KIA 타이거즈의 92년생 동갑내기 박준표와 문경찬이 자신감과 성실함으로 높은 1군 벽을 넘었다. ‘호랑이 군단’의 초반 질주에는 마운드의 힘이 있다. 변화무쌍한 변화구와 과감한 승부로 허리를 지켜준 박준표와 데뷔 전 선발승으로 6연승의 중심에 선 루키 문경찬도 마운드의 신바람 원동력이었다.

1군 마운드에 서는 지금이 행복하고 재미있다는 두 동갑내기 투수. 이들에게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얻은 귀한 마운드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나란히 교통사고를 당했다. 1군 오기나와 캠프 참가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결국 사고 여파로 2군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눈 앞에 있던 1군 캠프가 불발되면서 속앓이를 했던 박준표와 문경찬은 실력으로 이겨내자며 칼을 갈았다. 오기나와 캠프로의 부름은 받지 못했지만 착실하게 2군 캠프를 소화하며 기회를 기다렸던 두 사람은 시범경기에서 겨우내 준비했던 실력을 보여줬다.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미련없이 시범경기를 끝낸 두 사람은 결국 1군 합류 통보를 받았다. 시작은 늦었지만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 걸음을 걸은 끝에 1군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다.

박준표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튜빙도 열심히 하고 밤에 스윙도 하면서 허리

회전력을 높이려고도 했다. 오기나와 캠프에 못 가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 보다는 실력으로 보여주자, 미련없이 준비하자는 마음이었다. 엔트리에 들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잘 하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웃었다.

문경찬도 ‘긍정의 힘’과 자신감으로 셋별이 됐다. 1군 엔트리 합류 소식에 “기대하지도 못했다. 많이 떨리고 설렌다. 후회하지 않게 자신감 있게 즐겁게 하겠다”고 언급했던 신인 문경찬은 밝은 표정으로 덕아웃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금방 1군 적응을 끝냈다.

마운드 적응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첫 등판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거침없이 공을 뿌리며 kt 타자들을 덕아웃으로 돌려보냈다.

잃은 게 없기에 더 거침없었던 두 선수의 피칭은 지난 겨울의 아픔을 잊게 했다.

김기태 감독은 1군 엔트리 통보에 앞서 스프링 캠프에 참가했던 선수단 전원을 소집해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끝난 후 어느 자리에 있느냐이다”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끊임 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박준표와 문경찬에게는 더 가슴에 와닿았을 이야기였다. 어렵게 얻어낸 두 선수의 2015시즌, 또 다른 결승선을 향한 이들이 걸음이 바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준표

## 덕아웃 특·특

### 최희섭 “연승으로 감독님 수염 더 기르시게 만들게요”

▲“감독님께서 수염을 더 기르시도록 만들겠어요” = 7일 NC와의 홈경기에서 최희섭이 밝은 표정으로 “감독님께서 수염을 더 기르시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승리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김기태 감독은 연승행진을 하는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다. 덕분에 김 감독의 수염은 승리의 상징이 됐다. “특별히 징크스 이런 걸 만드는 성격은 아닌데 괜히 면도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김 감독. 고향팀에서 새로 출발한 김기태 감독에게도 시즌 초반은 그만큼 긴장되고 중요하다. 한편 이날 KIA 덕아웃에는 또 다른 승리의

상징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KIA는 개막에 앞서 챔피언스 필드에서 올 시즌 선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행사가 끝난 뒤 김경진 매니저가 고사장에 있던 명태포를 덕아웃 한쪽에 매달아 두었는데, 연습이 계속되면서 명태포도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다.

▲“기다리다가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으니까요” = 게임에 빚대 “라이프를 추가했다”고 웃던 포수 이흥구. 앞선 kt와의 경기에서 이흥구는 초구 공략으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부쩍 밝아진 표정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흥구는 모처럼 좋은 타격까지 하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했다. 이흥구는 “기다리고 있

다가는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투수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크를 잡고 시작하려고 하는 만큼 나도 초구부터 바로 공격을 할 생각이다”고 공격적인 타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감독은 뭘든지 피곤해” = 경기에 앞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기태 감독. 선수들의 컨디션에 이야기하던 그

는 휴식일이었던 전날 일부 선수가 경기장에 나와 운동을 했다고 슬쩍 귀띔을 했다. 그러면서 “감독은 뭘든지 피곤하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왔다고 보고만 들었다. 나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괜히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나가보지도 못했다. 감독 입장에서는 행동 하나

하나가 조심스럽다”고 웃었다.  
▲“타격 1위요” = 7일 경기 외야 라인업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 나지완과 김원섭의 이름을 언급한 김 감독은 마지막 한자리를 “타격 1위”라고 소개했다. 우익수 김다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날 경기 전까지 김다원은 16타수 8안타를 기록하며 0.500의 타율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김 감독은 “훈련할 때 선수들이 타격 1위, 타격 1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감독 코칭스타프도 기록 같은 것 많이 챙기지만 선수들도 잘 안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

## KLPGA ‘新 여왕’은 누구

### 9~12일 제주서 개막전... 16주 연속 대회 강행군

2015년 한국여자골프(KLPGA) 투어 첫 대회가 제주에서 막을 올린다.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스카이·오션 코스(파72·6187야드)에서 펼쳐지는 롯데마트 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은 지난해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다음으로 열리는 시즌 국내 개막전이다. 전지훈련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선수들 중에 가장 반가운 선수는 성공적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효주(20·롯데)다. 지난 시즌 KLPGA 투어에서 5승을 올리며 상금왕 등 주요 부문 타이틀을 독차지한 김효주는 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출전, 한국팬들에게 인사한다. 지난해 12월 중국여자오픈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효주는 지난 3월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지난주 LPGA 투어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 출전한 뒤 한국

으로 돌아오는 김효주는 힘든 일에도 세계 정상급 샷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롯데마트 여자오픈은 국내 골프 판세를 예측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김효주와 ANA 대회에 함께 출전한 허윤경(25·SBI저축은행),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출전, 국내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다툰다. 여기에 이정민(23·비씨카드), 김민선(20·CJ오쇼핑), 고진영(20·넵스) 등 지난 시즌 맹활약을 했던 선수들까지 가세,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올 시즌 데뷔하는 박결(19·NH투자증권)과 지한솔(19·호반건설)의 신인왕 대결도 관심사다. 디펜딩 챔피언 이민영(23·한화)은 신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어서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 한편 KL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16주 연속 대회가 열리는 강행군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 우즈 부활이나 매길로이 그랜드 슬램이나

### 내일부터 ‘마스터스’... ‘부진’ 최경주 출전 못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귀환과 세계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2015년 시즌 첫 남자메이저골프대회인 제73회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이커다란 두개의 주제를 갖고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막을 올린다. 프로골퍼들이 가장 출전하고 싶어 하는 이 대회는 ‘그린 재킷’을 내걸고 전 세계 골프 명인들을 선별, 나을 동안 열전에 들어간다. 마스터스는 엄격한 출전 자격 탓에 올해도 총 출전자수가 99명에 그쳤다. 엄선된 출전자 중에 관심을 한몸에 받는 선수는 우즈와 매길로이로 짐작된다. 마스터스에서 네 차례나 우승한 것을 포함, 메이저대회에서 14승을 올린 우즈는 이번 대회의 결과에 따라 잭 니클라우스가 보유한 메이저 최다승 기록인 18승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판

가날 전망이다. 우즈의 재기보다는 매길로이의 기록 도전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매길로이는 2011년 US오픈, 2014년 브리티시오픈, 2012년과 2014년 PGA 챔피언십을 제패, 마스터스에서만 우승하면 4대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모두 갖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한국 팬들로서는 한국 선수들이 줄어든 것이 아쉽다. 12회 연속 출전으로 ‘마스터스의 단골 손님’이었던 최경주(45·SK텔레콤)가 올해는 성적 부진으로 출전하지 못한다.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43)도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리를 ‘영건’ 배상문(29)과 노승열(24·나이키골프), 양건(21)이 메웠다. 교포 선수로는 케빈 나(32)와 제임스 한(34)이 출전한다.  
/연합뉴스